독일어·영어·프랑스어의 명사 비교 연구*

김순임**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연구대상 명사 목록과 형태적 유사성
Ⅲ. 유사성 유형에 따른 분석
Ⅳ. 나가는 말

|국문초록|

영어의 기원은 독일어와 프랑스에 근간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영어는 본래 게르만어에서 출발하였으며, 노르만 정복 이후 프랑스어의 영향으로 인해 영어 구조에는 두 언어의 특성이 있다. 프랑스어의 영향은 특히 어휘에서 잘 드러난다.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통해 이미 세 언어 사이의 동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동사 어휘에 있어 프랑스어의 영향이 독일어보다 확실히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명사 구조를 분석하고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인을 위해 만들어진 어휘 비교 사전 “Europäisches Wörterbuch”(1991, Orbis: München)으로부터 추출된 세 언어의 명사 목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연구년 연구비(2014-0518)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독일언어문학과 교수

록 4,702개를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독일어와 영어의 명사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은 10.0%인 반면,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유사성은 27.97%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영어 어휘의 1/3 정도가 프랑스어 명사의 어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각각 두 언어들 사이에만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사이에도 형태적으로 유사한 명사들이 발견되는데, 그 유사성은 23.82%에 달한다. 그러나 이 유사성의 배경에는 고대의 두 언어,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밀접한 유사성은 접사들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이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접두사와 접미사는 형태적으로 매우 비슷한 반면, 독일어의 접사들은 이들과는 아주 다르다.

연구대상 목록에서 흥미로운 것은 세 언어의 조사 대상 목록 중 34.70%가 전적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어휘적 형태적 비교, 명사 구조, 독일어 명사, 영어 명사, 프랑스어 명사, 접사

Ⅰ. 들어가는 말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이전의 언어 학습이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선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언어를 모국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처럼 영어가 제1 외국어로 학습이 되고 난 후에 제2 외국어를 학습하게 될 때 이 두 번째 외국어의 학습에 줄 수 있는 영향이 모국어인 한국어보다는 영어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Hufeisen, 1991; Bausch & Heid, 1992; Neuner 1996; Butzkamm 2002; Günther & Günther 2007 참조) 이런 관점에서 제2외국어 교육에서 모국어의 언어현상은 물론이지만 제1외국어의 학습 경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현상을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효과적인 독일어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독일어 학습자를 위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명사 어휘의 대조 분석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차적인 비교 대상은 독일어와 영어이지만, 프랑스어의 어휘까지 확장한 것은 영어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적인 특징 때문이다. 영어가 역사비교언어학에서 게르만어로 분류되기 때문에 흔히 독일어의 언어 현상이 영어의 현상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어는 그 발달 과정에서 많은 부분 로만스어의 영향을 받았고,[1] 그 결과 영어에는 게르만어와 로만스어의 현상이 섞여있다.[2] 그러므로 독일어가 영어와 비슷하리라는 기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어를 제1외국어로 먼저 배운 한국인 학습자가 독일어를 학습할 때 기대와는 달리 영어의 간섭현상으로 인해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독일어 교육을 위한 연구에서 다른 제2외국어인 프랑스어의 현상을 분석에 고려한 이유는 독일어와 영어의 비교를 통해 영어가 로만스어로부터 받은 내용을 구분함으로써 게르만어가 가지는

1) 허진영 , 「프랑스어와 영어의 비교 연구 - 영어에서 프랑스어 차용을 중심으로 - 」, 『언어과학연구』 45, 언어과학회, 2008. 288쪽 참조

2) Pisani, V., "Entstehung von Einzelsprachen aus Sprachbünden", *Kratylos* 11. 1966. 125쪽 참조.

고유한 요소를 밝히고자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미 연구된 독일어와 영어의 동사 구조와 동사 형태에 대한 비교 기술[3]에서 밝혀진 것은 같은 게르만어인 독일어와 영어 동사의 유사성이 20%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두 언어의 동사 어휘의 유사성이 예상보다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진행된 프랑스어의 동사 구조 분석에서[4] 영어의 동사어휘 42%가 프랑스어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는 조사 결과는 세 언어의 관계가 언어 계통학적 차원의 예상과는 다름을 보인다. 이러한 이전의 흥미로운 연구결과에 고무되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명사 어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독일어 학습자들에게 이전 언어 학습에서 오는 간섭현상을 줄이고 보고 효과적인 독일어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Ⅱ. 연구대상 명사 목록과 형태적 유사성

어떤 언어에나 전체 어휘 중에서 보다 중요하고 포괄적인 정보전달의 중심에는 명사와 동사가 있다. 문장의 내용 전달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보는 술어의 기능으로서 동사가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지시적 기능을 명사가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명사는 동사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를 이루며, 그 자체 자립적 어휘에 속한다. 또한 명사는 어류 상 기능적 범주

3) 김순임 & 송경안, 「독일어·영어 동사구조 및 형태의 통계적 비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3, 한국독일어교육학회, 1998 참조.

4) 송경안 & 김순임, 「독일어, 영어, 불어의 동사구조 비교연구」, 『독일언어문학 』13, 독일언어문학연구회, 2000 참조.

가 아닌 어휘적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주품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 언어의 어휘구조 분석을 목표할 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은 분석대상이다. 그것은 한 언어의 어휘 구조분석이 결코 주어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어휘구조 분석 자체가 특별한 전제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양인은 특히 명사적 언어 사용이 많다고[5] 전제 할 때 실재하는 어휘와 어휘 발달에 있어 명사의 수가 다른 어떤 품사보다 더 많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어휘구조 분석 표제어 선택이 중요한 일차적 작업일 것이다. 게다가 어휘의 형태적 유사성을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 언어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비교대상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인 동사어휘 구조 분석에서 이용했던 자료를 사용한다. 이는 우선 동사어휘 구조 분석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휘별 연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다 언어적인 환경에서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유럽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전이기 때문에 언어들 간의 어휘 비교 측면에서 유용하면서도 동시에 단순한 어휘 비교 사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사전은 Goursau, H. & Goursau, M.에 의해 편찬된 유럽어 사전 “Europäisches Wörterbuch”(1991, Orbis: München)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6개의 유럽어 단어 8,000 여개가 보통 한 표제어에 각각 한 단어씩 병렬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은 독일어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영어와 프랑스어가 병기된 표제어 목록이다.

어휘 항목 전체 7,826개 중에서 분석대상 명사로 조사된 표제어 수는

5) 리처드 니스벳 저, 최인철 역,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 135쪽 이하 참조; EBS <동과 서> 제작팀 & 김명진, 『EBS 다큐멘터리 동과서』, 예담, 2008. 35쪽 참조.

최종적으로 4,702개로 나타났다.[6] 이 목록은 독일어 표제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영어와 프랑스어가 대조된 경우를 말한다. 표제어 목록 정리 작업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첫째, 독일어 표제어 내에 두 개의 어휘가 나타날 때 일차적으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 첫 번째 어휘를 선택하였다. 예컨대 독일어 표제어 아래 표 1의 ①의 경우 독일어 표제어 Brauch를 선택하였다.[7]

<표 1>

	독	영	프
①	Bruach, Ritus	rite; ritual	rite
②	Breite	width, breadth	largeur
③	Nudeln	pasta, noodles	pâtes

둘째, 영어와 프랑스어 표제어에서 두 개 이상의 어휘가 나타날 때 독일어와 대응하여 형태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를 유사 어원으로 선택하였다. 표 1의 ②의 경우 독일어 Breite와 영어 Breadth가 유사 어원 형태소로 선택되었다. 이는 연구내용과 범위를 한정할 때 그 출발점을 일차적으로 세 언어에서 나타나는 형태적인 순수 유사성에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의 목표가 언어학적 어원론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언어의 명사들 사이에 나타나는 형태적 유사성을 통해 형태구조에 따르는 언어 간의 영향을 밝혀 제2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의 학습을 돕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6) 동사어휘 비교분석 대상인 독일어 동사 어휘 항목 1,439개에 비해 세배 이상 많은 명사 표제어 수이다. 이는 표제어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사가 어휘의 주요부분으로 대략 50-60%에 달한다(Erben, 1980, 124)는 기술에 부응한다.

7) 이 경우 Ritus처럼 독일어 한 표제어 내에서 제2 어휘로 제시되면서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대조 가능한 경우를 독립적으로 추가할 수 있으나, 변별력이 없을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임의적인 경우로 파악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표제어로 다루지 않았다.

셋째 표 1 ③에 제시된 독일어 Nudeln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영어의 noodles가 선택된 반면 프랑스어의 pâtes와 유사한 영어의 pasta는 분석에서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어휘를 분석함에 있어 우선은 독일어와 영어와의 관련성을 보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며, 영어의 차용어 또는 외래어까지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직접적인 연구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표제어 선택에 있어서 앞서의 조건을 고려하여 4,702개의 표제어를 유사성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구변하였다(표 2 참조).

<표 2>

1 독일어와 영어 사이의 유사성: 예 Apfel - apple - pomme
2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유사성: 예 Abänderung - modification - modification
3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세 언어의 유사성: 예 Agent - agent - agent
4 독일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유사성: 예 Allee - path - allée
5 세 언어 각기 다른 형태: 예 Abend - evening - soir
1′ 독일어와 영어 사이의 부분적 유사성: 예 Absender - sender - expéditeur
2′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부분적 유사: 예 Abdruck - print - empreinte
3′ 세 언어 사이의 부분적 유사성: 예 Antiquitäten - antique shop - antiquités
3″ 세 언어 사이에서 교차되어 나타나는 부분적 유사성: 예 Großvater - grandfather - grand-père
4′ 독일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부분적 유사성: 예 Klimaanlage - air conditioner - climatiseur

연구 대상인 명사 어휘 목록 4,702개 표제어들을 분석한 결과 세 언어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의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8]

<표 3>

표시	언어 간 관계	개수	소계	백분율 %
1	독-영	428	470	10.00
1′	독-영 부분	42		

8) 이 연구의 어휘 분석에서 사용한 코퍼스분석도구(Corpus analysis toolkit)인 소프트웨어는 AntConc 프로그램이다. http://www.laurenceanthony.net/software/antconc/ 참조.

표시	언어 간 관계	개수	소계	백분율 %
2	영-프	1,287	1,315	27.97
2′	영-프 부분	28		
3	독-영-프	1,082	1,123	23.88
3′	독-영-프 부분	38		
3″	독-영-프 교차	3		
4	독-프	159	162	3.45
4′	독-프 부분	3		
5	모두 다름	1,632	1,632	34.70
합계		4,702	4,702	100

이 결과에 따르면 독일어와 영어의 명사 어휘의 유사성의 정도(10.0%)는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의 정도(27.97%)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영어 명사 어휘에 끼친 로만스어 계통인 프랑스어가 같은 게르만어 계통인 독일어에 비해 훨씬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다시 세 언어 사이에 나타난 형태적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독일어와 영어 사이는 1,590(470+1,120)개로, 영어와 프랑스는 2,435 (1,315+1,120)개로 분석된다. 이들을 전체 어휘 4,702개를 대상으로 그 비율을 보면 독일어와 영어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는 33.03%로서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반면, 영어와 프랑스어의 어휘 유사성이 51.79%로 나타나고 있다. 이 영어와 프랑스어 간의 명사 어휘의 유사성 정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영어의 명사 어휘의 변화 내지는 발달과정에서 프랑스어의 영향을 가름해 볼 수 있다. 물론 영어에 끼친 이 영향이 전적으로 프랑스어라고만 보기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로만스어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사성 유형에 따라 이들 세 언어 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표 3의 '표시 5'에 나타난 목록 분석이 제외되었다. 이것은 이 항목의 어휘들은 세 언어 사

이의 유사 관계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어휘들로서 유사성 정도에 대한 비교 분석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어휘들에 대한 분석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 각 언어의 명사적 특징 기술에 토대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각 언어의 어휘적 구조 특징을 밝히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유사성 유형에 따른 분석

1. 독일어와 영어 사이의 유사 목록 분석 결과

외국어 습득과정에서 영어를 먼저 학습하고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를 위해 독일어와 영어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어휘를 살펴보는 것이 일차적이다. 물론 세 언어가 모두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독일어와 영어 사이의 유사성의 특징을 볼 수 있으나, 그 경우 또한 게르만어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로만스어적인 특징들이 더 나타날 것으로 유추된다.

언어들 사이의 형태적 비교 분석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조어 방식에 있어서 구분되는 유형으로 나타나는 합성어(Kompostia), 파생어(Ableitung), 전위어(Konversion), 축약어(Abkürzung)에[9] 대한 언급이다. 이 연구에서는 복합명사를 분석할 때 합성어와 파생어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축약어는 각 언어들 안에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으로서 실제 언어들 간의 분석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실제로 코퍼스 분석 작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전위어는 어간 모음 변화나 접

9) Bußmann, H. (hrsg.),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Kröner, 2002. 751쪽 참조.

사 파생을 하지 않고 고유한 의미를 갖거나 어휘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의미적, 통사적 차원과 관련한 조어법을 규명하고자 할 때 그 의미가 있으며, 세 언어의 형태 비교 분석하는 관점에서부차적인 것으로 일종의 파생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0] 이렇게 조어의 유형을 단순화하는 것은 이 연구가 특정언어를 조어론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언어에 따라 독특한 현상을 제시하는 조어 특성을 비교 기술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점은 소위 합성명사의 비교 기술에 있어서 조어 방식에 대한 특징 기술이다. 즉, 독일어의 명사 구조를 관찰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영어나 프랑스어에 비해 독일어의 독창적인 조어 생산성이다[11]. 조어법이 대단히 발달한 언어로 간주되는 독일어의 경우 특히 명사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영어의 경우에도 합성명사가 독일어와 같은 형태적 결합을 하는 명사가 있는 반면(예: Aufgabe vs. homework, Autobahn vs. motorway), 다른 구조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예: Führerschein vs. driving licence, Eßzimmer vs. dining-room) 합성명사 비교에 있어서 형성과정이나 생산성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어의 합성명사의 경우 독일어나 영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어휘단위체[12]로 불리는 경우(예: Abendkleid vs. robe de soirée, Eßzimmer vs. salle à manger)도 있다. 독일어와 영어 명사 어휘가 형태적으로 유사한 어휘 분석에서 470개의

---

10) Plag, I., *Word-Formation i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07쪽 참조; 플라이셔·바르츠 공저, 오예옥·유시택·이성만 역, 『독일어 조어론의 새로운 이해』, 한국문화사, 1999. 82쪽 참조.

11) 윤혜준, 「독일어 파생 조어의 유형과 분류의 문제 - 파생과 합성의 경계」, 『언어정보』9,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08, 45쪽 참조.

12) Grevisse, M., *Le bon usage : grammaire francaise*. Duculot, 1988. 189쪽 참조; 임국진, 「불어 합성명사의 결합가에 대한 고찰」, 『프랑스학연구』26, 한국프랑스학회, 2003, 207쪽 참조.

표제어 중에서 42개를 일차적인 분석에서 제외 시켰는데 이것은 독일어와 영어 어휘에서 어휘형태소의 일부만 일치하는 경우(예: Eis vs. ice cream, Fangnetz vs. fishing net 등)로서 두 언어의 어휘소 일부 또는 형태소 결합의 일부만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428개의 비교 어휘 중 다시 21개의 표제어가 제외 되었는데 이들은 독일어와 영어만 비교했을 때 동일 어휘가 2회 이상 나타난 경우이다. 이들은 프랑스어와 함께 비교했을 때 독자적인 어휘 목록으로 간주된 것이다. 이 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어휘 유형		독일어	백분율%	영어	백분율%
단일어		331	81.33	319	78.38
합성어	어휘소 + 어휘소	46	11.30	45	11.06
파생어	접두사 + 어휘소	2	7.37	2	10.56
	어휘소 + 접미사	27		40	
	접두사 + 어휘소 + 접미사	1		1	
계		407	100	407	100

이 결과 독일어와 영어에서 유사한 특징은 단일어 비율이 두 언어에서 모두 대단히 높다는 것과, 합성어가 파생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위 표에서 나타난 영어의 단일어가 적은 이유는 독일어 분석에서 전위어가 단일어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13] 한편 이에 대응되는 영어 어휘는 파생어로 분석되었다.[14] 다시 말해 독일어에서는 단일어로 간주된 어휘들이 영어에서는 접미 파생어로 나타난다는 것이

13) Angeln, Baden, Fechten, Fischen, Kochen, Lernen, Parken, Reiten, Schießen, Schwimmen, Segeln, Warten, Waschen (이상 13개).

14) angling, bathing, fencing, fishing, cooking, learnig, parking, riding, shooting, swimming, sailing, waiting, washing (이상 13개).

다. 따라서 영어는 독일어에 비해 접미 파생어 어휘 수가 더 많게 나타난다(독일어 27, 영어 40).[15] 또한 이들은 조어법 유형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합성어 비율이 파생어 비율보다 높은 것은 게르만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이 분석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두 언어에서 제시된 합성어이다. 독일어 합성명사 조어 방식과는 다소 다르게 영어의 경우 합성어가 다른 구조방식을 취하고는 있는데 이는 두 언어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어법의 차이라 할 수 있다.[16] 분석 자료를 관찰해 보면 합성어의 수가 두 언어에서 거의 그대로 대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독일어 46: 영어 44).[17]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위 표 4에서 보이는 파생어 유형 가운데 '접두사+어휘소' 유형(Misstrauen vs. mistrust과 Kompaß vs. compass)과 '접두사+어휘소+접미사' 유형 (Konfrontation vs. confrontation)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독일어 Misstrauen은 후기중고지독일어, mistrust는 중세 영어(1350-1400년)에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Kompaß 또한 15세기에 이탈리아어에서 차용된 것이다.[18] 다시 말해 이 두 어휘에서 접두사로 간주되는 형태는 공시적 차원에서 파생어라고 보기 보다는 단일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어와 영어의 Konfrontation과 confrontation은 중세 라틴어와 중세 프랑스어에 그 기원이 있다고 본다.[19] 이런 유형이 독일어와 영어가 유사한 어휘 목록에서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게르

15) 독일어의 전위어 13개가 영어에서 그대로 접미 파생어로 대응된다. 그러나 독일어와 영어의 파생어 수 30:43이 이러한 설명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독일어의 Hoffnung, Markierung, Plünderung과 같은 파생어가 영어에서는 hope, mark, plunder와 같은 단일어로 대응된다.

16) Außenseite vs. outside 또는 Ellenbogen vs. elbow 같은 유형과 달리 Filmproduzent vs. film-producer 또는 Gasthaus vs. guest-house, Herzattacke vs. heart attack, Kokuspalme vs. coconut palm 등이 있다.

17) 독일어 Windsurfen과 Handvoll은 합성어이며, 영어의 windsurfing과 handfuldms 파생어이다.

18) 어원분석 사전: http://www.etymonline.com/index.php

19) http://www.dwds.de/?view=1&qu=Konfrontation;
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confrontation 참조.

만어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접두사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 목록에서 접미사를 살펴보면 독일어나 영어가 가지는 고유의 접미사를 접할 수 있다. 즉 전형적인 독일어 접미사 -ung, -er와 영어 접미사 -ing, -er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독일어 접미사 : -ung 9회, -er 11회, -schaft 2회, -ing, -ion, -ant, -ent, -ist, -ment 각 1회 (총 27개).
영 어 접미사 : -ing 22회, -er 10회, -ery, -ful, -ian, -ion -ist, -ment -or, -ship 각 1회 (총 40개).

독일어와 영어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명사 어휘들을 분석해 볼 때 기초어휘 면에 있어서나 조어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관찰된 명사 어휘 전체를 놓고 볼 때 같은 게르만어 계통인 독일어와 영어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가 계통이 다른 로만스어인 프랑스와 영어 사이를 비교했을 때와는 아주 낮은 정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2.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유사 목록 분석 결과

다음은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어휘 목록 1,315개를 대상으로 세 언어 사이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1,315개 어휘 중에서 28개는 영어와 프랑스어의 어휘의 일부, 또는 어근만이 유사한 경우[20]이기 때문에 함께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제외한

20) 영어 vs. 프랑스어: print vs. empreinte, document case vs. porte-documents, exclusive rights vs. exclusivité, tea-room vs. salon de thé 등.

다. 나머지 1,287개 어휘가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에서 유사성을 보이며, 독일어는 전적으로 이 두 언어와는 다른 어휘 형태소 또는 형태소 구성을 나타낸다.[21] 1,287개의 세 언어의 표제어 분석에서 세 언어 모두가 동일한 6개의 목록을 제외하고 1,281개의 표제어 목록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1) 영어 어휘 분석과 프랑스어와의 관계

영어가 프랑스어와 유사한 어휘 1,281개를 분석했을 때 접두사나 접미사 없이 단일어로 취급되는 영어 명사는 488개(38,10%)로, 합성어[22]는 44개(3.43%)로 관찰된다. 이 중 합성어는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고유의 합성어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를 뿐 두 개 이상의 단어에 기초하여 형태소 단위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23] 이때 나타난 합성어의 비율은 독일어-영어 유사관계의 경우에 비해(11.06%) 아주 낮은 편이다. 이들 단일어와 합성어를 제외한 749개 (58,47%)는 파생어로서 영어 어휘 분석 대상의 절반 이상이 파생명사이다. 이 또한 독일어-영어 유사관계에서 분석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파생어 비율 10.56%).

접사별로 구분해 보면 접두사만 있는 어휘는 174개, 접미사만 있는 어휘는 298개, 또 접두사와 접미사를 동시에 가지는 어휘는 277개로 조사되었다(표 5 참조). 종합해 보면, 접두사를 가진 어휘는 451개, 접미사를 가진 어휘는 575개이다. 결국 형태적으로 프랑스어와 유사한 영어 명

21) 영어 vs. 프랑스어: modification vs. modification, dinner vs. dîner, chamber vs. chambre, departure vs. départ 등.

22) fruit-juice, grandparents, identity card 등.

23) Marchand, H., *The Categories and Types of Present-Day English Word-Formation. A Synchronic-Diachronic Approach*. Beck, 1969. 11쪽 참조.

사 어휘들은 특별히 파생을 통해 어휘를 생산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5>

조어유형		어휘 수	비율 %
단일어		488	38.10
합성어		44	3.43
파생어	접두사 + 어휘소	174	13.59
	어휘소 + 접미사	298	23.26
	접두사 + 어휘소 + 접미사	277	21.62
계		1,281	100

품사변화는 주로 접미 파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명사 조어에서 보다 의미 있는 접미 파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81개 영어 어휘 중 접미사를 가진 어휘는 30개 유형의 575개로서 대상 어휘의 44.89%에 해당하며, 높은 접미 파생을 보인다. 이중 생산성이 가장 높은 파생 어미는 -ion이며 240개로서 전체 접미어 출현의 41.74%에 달한다. 10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접미사는 아래와 같으며, 10회 이상 등장하는 9개 유형의 접미사를 합하면 248개이며, 접미사 -ion을 포함시키면 이들 9개 유형이 접미사의 84.87%를 차지한다.[24]

-ion (240회), -ity/-ty (63회), -er/-or (55회), -ance/-ence/-ancy /-ency (47회), -ment (34회), -age (15회), -ure, -y (각 12회)

그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ion은 전형적인 라틴어에서 나온 접미사이다. 다음으로 많이 출현하는 접미사 -ity 또한 형용사에서 명사를 만드

24) 그밖의 접미사 종류와 빈도: -ary, -cle, -ing, -ist 각 9회, -tude 7회, -al 6회, -ness 5회, -(e)ry, -ism, -ory 각 4회, -ant, -ee , -(i)an , -ics , -ule 각 3회, -eer/-ier, -itis, -ship 각 2회, -cy, -ess , -ician 각 1회 (총 97개, 16.87%).

는 라틴어적인 접미사이다. 55회의 빈도를 보이는 -er/-or (24개 vs. 31개)도 라틴어의 어미 -or과 밀접한 형태이다.[25] 그 다음으로 많은 출현을 보이는 접미사 유형 -ance/-ence/-ancy/-ency는 생산성에 있어서 형용사 접미사 -ant/-ent와 가까우며, 동사와 형용사로부터 나온다.[26]

1,281개의 영어 명사 어휘 중 접두사를 가진 어휘는 451개(35.21%)로서 접두 파생어도 어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위 3.1 장에서 보았던 독일어와 영어가 유사한 유형의 비율(0.74%)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451개의 접두사는 29 종류로 분류되었다. 아래 접두사들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 11개 유형이 전체 접두사의 88.69%에 해당한다.[27]

em-/en-/im-/in-[28](69개), co-/com- (56개), ex-/e-/ec- (50개), re- (50개), de- (45개), ad- (40개)[29] (이상 310개, 69.35%)

dis-/di-/dif- (23개), pro- (23개), pre- (17개), sub-/suc-/sup-/sus- (17개), inter- (10개) (이상 400개, 88.69%)

영어-프랑스어 유사관계 목록에 나타난 프랑스어와 유사한 형태의 영어 명사 어휘들은 일차적으로 로만스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정은 영어에 대응되는 프랑스어의 분석을 통해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독일어에서 합성어가 한 단어로 표기되는 것과 달리 영어와 프

25) Plago op, cit. p.9 참조.
26) Ibid., p.87 참조.
27) 그밖에 접두사: a-/ab-, super-/supre-/sur- 각 7개, per- 6개, ob- 5개, contra-, dia-, ttrans- 각각 3개, circum-, epi-, hypo-, meta-, para-, peri-가 각각 2개, ante-, arch-, bene-, bi-, mal-이 각각 1개로 조사되었다(합계 51개). 이들 절대 다수는 라틴어 계열의 접두사이며, 몇몇만이 그리스어에서 온 것이다.
28) 이 유형은 의미적으로 세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29) 접두사 ad-에는 변이형으로 a-, ac-, af-, an-, ap-, ar-, as-, at- 등이 포함되어 있다.

랑스어 경우 합성어 표시 형태가[30] 독일어보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두 언어에서 명사의 형태 또한 거의 유사하다.[31]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어와 프랑스어 명사의 형태적 유사성은 파생어 형성에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두 언어의 접사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생어 가운데에서도 접두 파생어보다는 품사전환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접미 파생어의 분석이 두 언어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을 더욱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영어와 프랑스어의 접두 파생어들을 관찰해 보면 두 언어의 어휘화 과정에서 나타난 음운상의 작은 차이들이 있으나,[32] 접두사에서의 두 언어 간에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프랑스어의 접미 파생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며, 특히 영어의 접미사와 대응되는 프랑스어의 접미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1,281개의 어휘 목록 중 합성어[33] 46개 제외한 목록 1,235개인데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둘 이상의 동일한 어휘(27개)를 제외한 1,208개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나타난 프랑스어의 접미사들을 영어의 접미사에 대응시켜 보았다.

<표 6>

영어 접미사		프랑스어 접미사	
수	유형	유형	수

30) 여기서는 형태 구조를 살피기 때문에 의미 구조를 통해 내심 합성어, 외심 합성어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31) 예: Aktenkoffer vs. attaché-case vs. attaché-case, Obstsaft vs. fruit-juice vs. jus de fruit, Kriegskunst vs. martial arts vs. arts martiaux, Tankstelle vs. service station vs. station-service.

32) hermit vs. ermie, hostage vs. otage, scarf vs. écharpe 또는 screen vs. écran 또는 stomach vs. estomac 등.

33) 영어의 경우 44개의 합성어가 프랑스어의 경우 46개가 관찰되는데 이 차이는 영어의 submarine과 subsoil이 프랑스어 sous-marin, sous-sol로 영어에서는 접두 파생어로, 프랑스어에서는 합성어로 대응되기 때문이다.

영어 접미사		프랑스어 접미사	
240	-ion	-ion	238
63	-ity /-ty	- ité/ (-eté/-été)/ -té	64
55	-er /-or	-eur/ -er	46
47	-ance/-ence/-ancy/-ency	-ance/ -ence	51
34	-ment	-ment	39
15	-age	-age	17
12	-ure	-ure	9
12	-y	-ie	13
9	-ary	-aire	14
9	-cle	-cle/ -cule	9
9	-ing		0
9	-ist	-iste	7
7	-et	-et/-ette	9
7	-tude	-tude	8
6	-al	-al/ -aille	5
5	-ness	-esse	6
4	-(e)ry	-ie	3
4	-ism	-isme	5
4	-ory	-oire	6
3	-ant	-ant	4
3	-ee	-é	2
3	-(i)an	-an	1
3	-ics	-tique	2
3	-ule	-ule	3
2	-eer/ -ier	-	0
2	-itis	-	0
2	-ship	-	0
1	-cy	-	0
1	-ess	-	0
1	-ician	-	0
575			561

표 6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어의 접미사 대부분이 프랑스어의 영향

을 받았다는 것이다. 물론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동일한 접미사를 보여주는 어휘의 수가 반드시 일 대 일 대응하지는 않으나 그 빈도에 있어서 유사함은 두 언어 사이의 관계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영어에서 접미사 -ion이 있는 어휘 240개 중에서 프랑스어에서 동일한 접두사로 대응되지 않는 어휘는 12개[34]이다. 반면, 프랑스어에서 어미 -ion이 있는 명사는 238개인데 이중 영어에서 동일하게 대응되지 않고 다른 형태소를 가지는 경우가 10개[35]이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영어의 파생접미사는 -ity/-ty로 이 접미사를 가진 어휘 수가 63개로 나타나는데, 프랑스어에서 하나의 어휘를[36] 제외하고 모두 유사한 접미사로 대응된다.

두 언어에서 파생어의 기저는 같으면서 파생 접미사는 서로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영어 접미사 -ing을 가진 어휘들이 있다. 이들은 프랑스어 영향을 받은 기저 형태소에 순수한 영어 접미사가 더해진 파생어 유형이다. 그러나 이런 특성의 어휘들에 대응하는 프랑스어 어휘의 접미사는 전적으로 다르다.[37] 또한 전형적인 영어 접미사인 -ship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인다.[38]

---

34) abortion - avortement, calculation - calcul, cultivation - culture, devotion - dévouement, examination - examen, examination - examen, indication - indice, litigation - litige, reflection - reflet, regulation - réglement, suspicion - soupçon, vacation - vacances

35) arrestation - arrest, commission - committee, conspiration - conspiracy, estimation - estimate, importation - import, pression - pressure, proposition - proposal, punition - punishment, réception - receipt, signalisation - sign

36) 영어의 audacity가 프랑스어에서는 audace로 나타남. 반면 프랑스어에서 -ité/ -eté의 어미를 가진 어휘가 영어에서는 -ity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소로 실현되었다(fermeté vs. firmness, unité vs. unit).

37) colouring - colorant, cycling - cyclisme, engineering - ingénierie, functioning - fonctionnement, launching - lancement, painting - peinture, reasoning - raisonnement, rejoicing - réjouissance, suffering - souffrance

38) apprenticeship - apprentissage, championship - championnat

2) 독일어 분석

이 장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유사한 어휘 목록 1,281개를 중심으로 영어와 프랑스어 명사들의 유사성을 기술하고 있지만 이 어휘 목록에 대응되는 독일어 어휘 분석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독일어 명사는 유사관계에 있는 영어와 프랑스어의 어휘들과 달리 전적으로 다른 어휘 형태나 조어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와 프랑스어 간의 어휘 친족성이 더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다.

독일어 분석에서는 어휘 목록 1,281개 중에서 동일 어휘 목록을 제외하였다. 이는 어휘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어휘의 표제어(Tokens) 보다는 유형(Types)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1,281개의 표제어 중에서 2회 내지는 4회까지의 동일 빈도를 보이는 96개의 표제어를 제외한 1,185개의 어휘 목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7>

조어 유형			수	소계	백분율%
단일어			325	325	27.43
합성어		1 유형	353	392	33.08
		2 유형	39		
파생어	접두사 + 어휘소		71	468	39.49
	어휘소 + 접미사	1 유형	163		
		2 유형	93		
	접두사 + 어휘소 + 접미사		141		
합계			1,185	1,185	100

표 5(영어)와 표 7(독일어)의 비교에서 분명한 차이는 합성어에 있다. 표 5에서 제시된 영어 합성어는 전체 1,281개 어휘 중 3.43%의 비율을 보인 반면 표 7에 나타난 독일어 합성어는 1,185개 중 33.08%의 비율로써 독일어의 특징인 높은 합성어 생산성을 보인다.[39] 표 7에서 합성어

가 구분된 이유는 명사의 조어방식에서 보이는 합성어와 파생어 간의 불분명한 경계로 인한 것이다. 예컨대 복합동사나 단어 그룹에 명사화 접미사 -ung이 첨가되어 만들어진 명사를 파생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합성어의 제2 구성요소를 이미 기저형태소에 접미사가 첨가되어 명사화가 이루어진 독립적인 파생어휘로 보고 여기에 제1 요소가 결합되어 새로이 생성된 합성어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예컨대 Überfprüfung의 경우 überprüfen에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Massenauswanderung을 'Massen auswandern + -ung'으로 분석하여 파생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Massen + Auswanderung'처럼 두 개의 어휘 결합인 합성어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단어그룹이 파생 기저가 되는 경우 합성과 파생의 경계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40] 또한 접미 파생어로 간주했으나 합성어와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말 할 수 있는 경우가 표 7에서 접미 파생어의 둘째 유형에 포함된 어휘들이다. 이들은 합성어의 둘째 유형과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Zu=schau-er, An=zeig-er, Um=dreh-ung, Rede=gewandt-heit 등과 같은 어휘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을 일별하여 파생어로 분류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 속한 어휘들의 파생 기저가 2개 이상의 자립형태소로 구성된 단어그룹, 즉 합성어의 특징이 있다.

1,185개의 독일어 표제어 분석결과 단일어는 27.43%, 합성어 33.08%, 파생어 39.49%의 백분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 결과로는 조어 생성에 있어서 파생어 비율이 합성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것처럼 표 7에서 파생어로 간주된 둘째 유형이 합성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실제 독일어 조어법에 있어서 합성어 조어가

39) Glück, H. (hrsg.), *Mitzler Lexikon Sprache*. Metzler, 1993, 321쪽 참조.
40) 플라이셔 ·바르츠 공저, 오예옥·유시택·이성만 역, 앞의 책, 79쪽 참조.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어의 합성어는 구성요소들이 이미 합성 또는 파생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어휘들도 있지만, 순수하게 두 개의 어휘소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7에서 제시된 합성어 첫 번째 유형 351개의 어휘 가운데 순수하게 두 개의 어휘소로 이루어진 합성어(Abgrund, Angelschnur, Brechreiz 등)는 316개로 전체 90.03%에 이른다.

1,185개의 독일어 조사 목록에서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를 살펴보면 역시 이들은 게르만어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조사된 파생어의 접두사는 212개인데 이들 접두사의 종류는 10개 유형으로 정리된다.

ver- (71회), be- (50회), ge- (33회), er- (20회), ent- (14회), un- (13회), emp- (5회), ur- (3회), zer- (2회), miß- (1회)

이 접두사를 가진 어휘를 보면 독일어에는 실제 고유한 명사적 접두사가 거의 없다고 보는 시각을[41] 증명해주고 있다. 즉, 여기에 나타난 접두사에서 ge-, miß-, un- 또는 ur-와 같은 명사를 만드는 접두사를[42] 제외하면 다른 접두사들은 복합동사를 형성하는 동사적 접두사들이다.[43] 다시 말해 여기서 관찰된 명사들은 전적으로 동사에서 온 파생명사이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접두사들을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두사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표 7에서 '접두사 + 어휘소' 유형의 파생어로 분류된 명사

41) 앞의 책 303쪽 및 405쪽 참조.

42) 위의 책 303~310쪽 참조: 이들은 독일어의 명사적 파생어를 만드는 고유의 접두사로 erz-, ge-, haupt-, muß-, un-, ur- 를 들고 있다.

43) 동사를 만드는 접두사에 대한 것은 송경안 & 김순임 2000, 앞의 책 6쪽 참조. 흥미로운 것은 현재 기술하고 있는 접두 파생명사의 접두사로 분석된 접두사의 빈도가 정확하게 송경안 & 김순임 (2000)에서 기술하고 있는 동사 접두사들의 빈도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71개를 살펴보면 앞서 말한 몇 몇의 명사를 만드는 독일어 고유한 접두사를 가진 어휘를 제외하면 탈동사적 전위어들[44]로서 여기서는 파생어로 분류된 동사에서 온 파생어이다. 따라서 접두 파생명사의 분석에서 접두사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파생명사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에 대한 기술이다. 표 7에서 접미사를 가진 명사는 397개이며, 합성어로 간주된 어휘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39개의 명사에도 명사 조어와 관련된 접미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총 436개의 명사 접미사를 가진 어휘를 분석해 보면 19개 유형의 접미사가 그 빈도에 있어서 -ung (220회), -er (84회), -keit (44회), -heit (32회), -schaft (14회), -nis (12회) 순으로 나타난다. 이 6개 유형의 접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3.12% (406개)이며,[45] 그 중 절반 이상을 접미사 -ung이 차지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가장 대표적인 독일어 명사화 접미사는 '-ung'(전체의 50.46%)임을 알 수 있다.[46] 또한 위의 접미사들은 전형적인 독일어 고유의 명사화 접미사들로서 이 독일어 목록에 대응되는 영어와 프랑스어와 비교해 볼 때 전형적인 게르만어적인 특징을 드러낸다.

---

44) 예컨대 Beruf, Erfolg, Empfang, Entwurf, Verbrauch 또는 Bedauern, Erstaunen, Verbrechen 등.

45) 다른 나머지 접미사 13개 유형은 -chen (8), -tum (5), -ei(4), -el (3), -ling (2), -in (1), -sal (1), -sel (1), -tel (1)의 독일어 고유한 명사 접미사를 포함하여 외래어 접미사 -age, -ess, -ment, -tät (각 1개씩) 나타난다.

46) 명사화 접미사 -e는 분석 기술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독일어 대표적인 여성명사가 -e로 끝나는 명사인 것과 다양한 품사를 기저로 하여 만들어 내는 접미사 -e와 구분이 쉽지 않으며, 이 연구는 접두사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코퍼스 분석 도구에 따르면 어미 -e로 끝나는 명사가 149개 달하는데 이 어휘들을 개략적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명사화 접미사 -e를 가진 어휘들이 -ung과 비교해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3. 독일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유사 목록 분석 결과

전체 목록 4,702개 중에서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유사 어휘 목록(1,315개, 27.97%))에 비하면 독일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유사 어휘 목록은 162개로서 전체의 3.45%에 불과하다. 162개의 어휘 목록에서 부분 유사 목록 3개를 제외한 159개의 독일어 명사 어휘를 보면 전적으로 프랑스어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159개의 목록 중 합성어가 1개, 동일 어휘가 1개가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항목 157개를 형태적으로 다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류에 해당하는 것은 형태적으로 두 언어가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그 수가 71개(45.22%)에 달한다.[47] 여기에는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간주되었으나, 두 언어의 고유한 표기법으로 인해 철자 상의 차이가 있는 어휘도 포함되었다. 예컨대 프랑스어의 c는 독일어에서 k로 실현되거나 z로 실현되는 것, 또 c가 어미에 올 경우 독일어에서는 ck로 실현되는 경우들이다.[48] 둘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두 언어 사이의 철자 또는 음운 상의 특성으로 인해 그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나 첫째 부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그 어휘 수는 48개로[49] 나타났다. 이들은 프랑스어의 어미가 독일어에서 독일어화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어의 어미 '-aire'가 독일어에서 '-ar' 또는 '-är'로 실현된 경우, 또는 '-cle'의 형태가 독일어에서는 '-kel'로 실현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프랑스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접미사 어미 '-ité'는 독일어에서는 '-tät'라는 독일어식의 외래어 접미사로 나타

47) 예: abonnement-Abonnenment, allée-Alle, contrôleur-Kontrolleur, étui-Etui, silhouette-Silhouette
48) 예: caméra-Kamera, parcelle-Parzelle, bloc-Block; que-k: informatique-Informatik, tif-tiv: objectif-Objektiv
49) 예: angine-Angina, citron-Zitrone, culte-Kult, buffet-Büfett, bureau-Büro, cravate-Krawatte

난다.[50] 셋째 부류에 속하는 독일어 어휘는 39개로서 위의 두 부류와는 다소 다른 형태를 나타내지만 프랑스어 어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이다. 이 어휘 목록에는 -er, -tum, -ung 등과 같은 독일어 고유의 접미사를 가지는 명사도 있다.[51]

157개의 프랑스어 명사에 나타난 접미사는 18종 40개로 조사되었다. 한편 독일어 접미사는 22종 40개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독일어 고유 접미사 4개(-chen, -er, -tum, -ung 각 1회 등장)를 제외하면 모두 외래어 접미사이다. 독일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을 나타내는 159개의 명사 어휘의 분석 결과 독일어는 고유 접미사를 가진 몇 개의 어휘를 제외하면 프랑스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어와 프랑스어 명사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159개의 목록에 대응되는 영어 어휘들을 살펴보면 다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 어휘 159개 중 단일어가 92개, 파생어가 34개, 합성어가 32개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독일어와 프랑스어에서는 합성어가 하나인 것과 달리 영어의 합성어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20.13%). 이것은 앞서 기술된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유사 명사 목록 1,281개 중 합성어가 영어에서는 44개(3.43%), 프랑스어에서는 46개(3.59%)로 분석된 것에 비하면 의외의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사할 여지가 있다.

4.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사이의 유사 목록 분석 결과

세 언어의 명사 어휘가 모두 유사한 경우는 전체 4,702개 표제어 중

50) 예: actionnaire,-Aktionär, notaire-Notar, article-Artikel, socle-Sokel, éventualité-Eventualität, rentabilité-Rentabilität

51) 예: Bürger-bourgeois, Bürgertum-bourgeoisie, Blockierung-blocage

1,123개 항목으로 전체의 23.88%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부분 유사 목록과 부분 교차 목록 44개를 제외한 1,079개를 분석하였다. 일차적으로 세 언어에서 나타난 합성어를 보면 세 언어에서 각각 77개씩 발견된다. 합성어의 경우 영어와 프랑스어는 그대로 일치하는 형태와 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위 두 언어에서는 합성어(per cent - pour cent)이나 독일어에서는 파생어인 명사 하나가 있다(Prozent). 한편 독일어에서는 합성어로 간주된 한 개의 명사(Einfluß)가 다른 두 언어에서는 파생어(influence - influence)이다. 영어를 토대로 합성어 구성요소의 어원적 유래를 살펴보면 그리스어 어원이 가장 많고 그 수가 55개에 달한다. 라틴어의 어원은 13개,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어휘(iceberg)가 하나, 이탈리아어에서 나온 어휘(violoncello)가 하나로 조사되었고, 미국영어 어휘(basket-ball, credit card, visiting card)가 셋이다. 고유 영어 어휘는 77개 중 4개(folklore, football, pullover, weekend)로 조사되었다. 형태적으로 유사한 세 언어의 합성어를 분석해 볼 때 대부분 고대 언어로부터 유래한 외래어가 그 중심에 있다(88.31%).

<표 8>

조어유형		독일어	비율 %	영어	비율 %	프랑스어	비율 %
단일어		593	54.96	587	54.40	588	54.50
합성어		77	7.13	77	7.13	77	7.13
파생어	접두사 + 어휘소	55	5.10	55	5.10	54	5.00
	어휘소 + 접미사	250	23.17	255	23.63	254	23.54
	접두사 + 어휘소 +접미사	104	9.64	105	9.73	106	9.82
계		1,079	100	1,079	99.99	1,079	99.99
접두사 합계		159	-	160	-	160	-
접미사 합계		354	-	360	-	360	-

표 8에서 보는 대로 여기서 분석된 전체 어휘 1,079개 중 합성어 77개를 뺀 1,002개 어휘 중 영어를 보면 접두사도 접미사도 없는 어휘는 587개이며, 접두사만 있는 어휘는 55개, 접두사와 접미사 모두를 가진 어휘는 105개, 접미사 만 있는 어휘는 255개이다.[52] 종합해 보면 단일어로 파악된 587개를 제외하면 접두사를 가진 어휘가 160개, 접미사를 가진 어휘가 360개로써 명사 파생에 기여하는 접미사가 두 배 이상이다. 접두사는 명사 파생에 있어서 어휘 기저의 구성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명사 파생어 기술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파생 접미사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진다.

영어의 경우 접미사를 가진 명사가 56개 종류 360개로 분석되었다. 이들 56개 종류 중에서 10개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접미사들은 11개의 유형으로 전체 223개로서 61.90% 해당한다.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52 종류의 접미사를 보였으며, 역시 360개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10회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어미는 10개 유형으로 전체 235개로 이들이 65.28%에 달한다. 독일어에서도 유사한 접미사들이 50개 종류로 나타났다. 전체 354개의 어미 중에서 10회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것은 11종류 234개로 66.10%에 해당하며, 영어와 프랑스어와도 비슷한 결과이다(표 9 참조).

<표 9>

언어	10회 이상 빈도의 접미사	수/전체	비율%
영어	-ion 74, -ity 23, -y 23, -or 20, -ism 17, -ence/-ency 14, -er 14, -ure 14, -ment 13, -ist 11, -ics 10	223/360	61.90
프랑스어	-ion 75, -ie 30, -eur 25, -ité 23, -isme 17, -ment 17, -ure 14, -ence 12, -ique[53] 11, -ier 11	235/360	65.28
독일어	-ion 65, -ie 28, -ität 25, -er 20, -or 20, -ismus 15, -ung 15, -ur 13, -enz 11, -ik 11, -ment 11	234/354	66.10

52) 접사들의 차이는 언어에 따라 몇 몇의 어휘에서 다른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53) AntConc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프랑스어에서 어미 -ique를 가지는 명사는 26개로 나타나지만

독일어의 접미사를 살펴보면 이들 대부분은 독일어 고유 접미사가 아니라, 외래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물론 독일어 고유의 접미사도 나타나는데 이 중에는 접미사 -er와 더불어 가장 생산적인 -ung[54]도 포함되어 있다. 독일어 고유의 명사화 접미사 -ung의 사용은 주로 어미가 -ieren으로 끝나는 외래어 동사로부터 명사가 만들어진 경우이다. 여기에 대응되는 프랑스어의 경우 1군 동사 어간에 접미사 -ement을 사용하여 명사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랑스어의 경우 그밖에는 접미사 -ion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55]

세 언어에 나타난 접미사 어미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각 언어에 따라 다소 다른 형태를 지니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와 그 빈도에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 언어가 형태적으로 유사한 목록에서 어휘들은 형태적으로 대체로 로만스어가 기본라고 보기 때문에 프랑스어 접미사를 기준으로 세 언어의 접미사와 그 빈도를 대응시켜 보았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세 언어의 주요 접미사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56]

<표 10>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어미	빈도	어미	빈도	어미	빈도
-ion	75	-ion	74	-ion	65
-eur/-ier/-er/-ien	47	-or/-er/-ier/-eur/-ian	46	-er/-or/-eur/-ier	49
-ie	30	-y	23	-ie	28

프랑스어 철자 특징에 따라 나타나는 어휘들(예컨대 colique, musique, tactique 등)은 파생어로 보지 않았다.

54) 플라이셔·바르츠 공저, 오에옥·유시택·이성만 역, 앞의 책, 262쪽 참조.

55) Rekrutierung vs. recrutement, Repatriierung vs. rapatriement, Reservierung vs. réservation, Kolonosierung vs. colonisation 등.

56) 여기에는 영어 고유의 접미사 -ing(6회)과 독일어의 -ung(15회)은 제시되지 않았다.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어미	빈도	어미	빈도	어미	빈도
-ité	23	-ity	23	-ität	25
-isme	17	-ism	17	-ismus	15
-ment	17	-ment	13	-ment	11
-ure	14	-ure	14	-ur	13
-ence	12	-ence/-ency	14	-enz	11
-ique	11	-ics	10	-ik	11
-aire	8	-ary	4	-ar	5
-ose	8	-osis	7	-ose	8
-iste	7	-ist	11	-ist	9
-age	6	-age	4	-age	5
-ance	6	-ance	4	-anz	4
-ant	6	-ant	6	-ant	6
-ent	4	-ent	5	-ent	6
-té	3	-ty	4	-tät	3

위 표에 제시된 접미사들 중에 생산성이 높은 몇 가지 접미사를 살펴보면 프랑스어에서 기저형태로 동사만을 취하는 접미사 -ion은[57] 가장 생산성이 높은 명사화 접미사이며,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은 영어에서도 역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다. 이 접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프랑스어에서 20.83%, 영어에서 20.56%로서 명사 접미사 중 가장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영어-프랑스어 유사관계 유형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이 유형의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나타난 명사화 접미사 -ion의 비율은 각각 41.74%와 42.42%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세 언어가 유사한 어휘 목록의 독일어에서도 접미사 -ion은 생산적인 조어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두 언어에 비해 독일어에서 -ion이 18.36%로 다소 그 비율이 낮은 것은 두 언어에 비해 독일어 고유 접미사 -ung의

57) 서정철·강주헌·김용숙·원유상 공저, 『현대 불어학개론』, 신아사, 1989. 444쪽 참조.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4.24%). 이것은 독일어에서 접미사 -ung이 동사를 기저형태를 취하여 명사를 만드는 생산성이 높은 고유 접미사임을 보여준다. 이런 특성을 분명하게 보인 곳은 독일어-영어 유사관계 목록이며, 이 목록 분석에서 접미사 -ung은 접미사 전체 비율의 50.46%에 달하였다.

그 다음으로 생산성이 높은 명사 접미사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접미사들이다. 프랑스어에서는 대표적으로 -eur (25개), -ier (11개) -ien (9개) 이며, 영어와 독일어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er는 프랑스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2개). 한편 여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영어에서는 -or (20개)와 -er (14개)가 사용되며, 프랑스어의 -ien (9개)은 영어에서는 대부분 -ian (8개)으로 대응되었다. 접미사 어미 -eur (2개)와 -ier (2개)는 영어에서도 나타난다.[58] 독일어에서는 이와 관련된 접미사는 -er (20개)와 -or (20개)로 대부분 대응되는데 -or는 영어의 -(t)or에 해당하는 것으로 라틴어의 기원을 가진 명사를 나타낸다. 이 접미사들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ier (6개)와 -eur (3개)가 독일어에서도 접미사로 사용되는데 이들은 모두 프랑스어의 차용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어의 접미사 형태 -ien과 이에 대응하는 영어의 -ian 형태가 독일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프랑스어의 어미 -ie는 상태, 질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명사 형성 접미사로서 이들은 기저형태로 명사나 형용사를 취한다.[59] 대부분 이에 대응하는 영어 접미사는 -y로, 독일어에서 외래어 접미사 -ie로 나타난다. 영어-프랑스어 유사관계 목록에서는 1위인 -ion 다음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인 접미사 -ité[60]는 여기서는 네

58) amateur, croupier 등
59) 서정철·강주헌·김용숙·원유상 공저, 앞의 책, 445쪽 참조.

번째로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낸다. 라틴어가 아닌 그리스어의 기원을 가지는 프랑스어 접미사 -isme (영 -ism, 독 -ismus)은 주로 체제나 체계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 언어 모두 빈도 면에서 비슷하다. 세 언어에서 모두 접미사로 사용되는 -ment는 주로 동사에서 명사를 만드는 라틴어 접미사 -mentum에서 프랑스어로 들어와 다시 영어 접미사 -ment가 되었다.[61] 이 접미사는 프랑스에서 -ement 또는 -issement로서 동사의 명사화에 이용된다.[62] 독일어에서는 오히려 -ment 대신 고유의 명사화 접미사 -ung이 사용된다. 영어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영어 고유의 접미사 어미 -ing으로 대응되었다.[63]

명사 생성에 관계되는 것이 접미사이기 때문에 어휘 기술에서 접미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나, 간략하게 접두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언어에서 접두사는 각각 159개(독일어), 160개(영어), 160개(프랑스어)로 분석되었다. 영어를 중심으로 접두사를 분석하였는데, 이것은 언어 간의 간섭현상 차원에서 독일어에 대한 영어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어휘 관계에 있어서 프랑스어가 영어에 끼친 영향을 더 직접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64] 160개의 접두사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났으며,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cor-, co-, col-(33회) 등이 포함된 com- 이다.

in- 26회, re- 23회, com-, con-, pro- 각 13회, ex- 8회, ad-, de-,
dis- 각각 6회, an-, dia-, trans- 각각 4회, cor-, inter-, para-, pre-,

---

60) -eté형 한 개: souveraineté - sovereignty - Souveränität,, -té도 여기에 속함.
61) http://www.dictionary.com/browse/-ment?s=t 참조.
62) 서정철·강주헌·김용숙·원유상 공저, 앞의 책, 444쪽 참조.
63) croisement - Kreuzung - crossing, financement - Finanzierung - financing, rationnement - Rationierung - rationing 등.
64) 철자상의 차이(예. compass vs. Kompass, substraction vs. soustraction)는 고려하지 않았다.

sub- 각각 3회, anti-, co-, col-, epi-, il-, sym- 각각 2회, archi-, auto-, hypo-, im-, mono-, super-, syn- 각각 1회.

이 유형의 조사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합성어의 공통 기원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라는 것이다. 접두사나 접미사 또한 많은 경우 라틴어에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분석으로는 독일어와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발달 과정에 대한 기술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없다. 다만 독일어 역시 다른 두 언어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 이 목록의 어휘들을 통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때 이들이 고대 언어로부터 일차적으로 프랑스어에 수용되어 다시 일정한 과정을 통해 독일어나 영어의 어휘가 되었다고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목록에 나타난 어휘들은 다소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으나 많은 경우 여러 언어들에서 직접 유입되어 외래어로서 각 언어의 어휘 목록에 수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65]

IV.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명사를 형태적인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연구대상 목록은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병기 표제어 4,702개이다. 이 대상 목록을 언어별 유사성의 차원에서 구분하여 분석 조사하였다. 다시 말해 독일어와 영어(470개), 영어와 프랑스어(1,315개), 독일어와 프랑스어(162개) 그리고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1,123)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을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총 3,070개). 이 과정에서

65) 어원사전 http://www.dwds.de/ 을 통해 임의적으로 선택한 어휘 조사 결과에서 유추한 것이다.

이 세 언어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어휘 항목(1,632개)은 세부적인 분석에서는 제외하여 다음 연구로 남겼다.

전체 항목을 대상으로 할 때 독일어와 영어 명사의 유사성 정도가 10.0%로서 나타났고,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유사성 정도는 27.97%로 조사되었다. 물론 여기에 세 언어가 유사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독일어와 영어 사이의 유사성의 비율은 33.03%, 영어와 프랑스어의 어휘 유사성은 51.79%로 올라간다. 독일어와 영어,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유사성 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영어 명사의 변화 내지는 발달과정에서의 프랑스어의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물론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 유럽적 상황에서 영어에 영향을 끼친 언어가 전적으로 프랑스어라고만 보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라틴어를 중심으로 하는 로만스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어와 영어가 유사한 형태의 어휘 목록 조사에서 보다 두드러진 현상은 파생어에 비해 합성어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독일어와 영어의 유사목록 합성어 비율이 평균 11.18%인데 비해, 영어와 프랑스어가 유사한 목록에서는 합성어 비율이 3.43%, 독일어와 프랑스어의 유사 목록에서는 0.63%, 세 언어가 유사한 목록에서는 7.14%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독일어-영어 유사관계 목록에서 두 언어가 유지하고 있는 게르만어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게르만어적인 현상은 이 목록의 파생어의 접미사에도 볼 수 있었다. 즉, 여기서 나타난 독일어나 영어의 접미사들은 대부분 각 언어의 고유한 접미사들이다. 예컨대 독일어의 경우 -ung과 -er가 74.07%를 영어의 -ing과 -er가 80.0%를 차지한다.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유사한 형태의 목록 수(1,281개)는 독일어와 영어 간의 유사성 목록 수(407개)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다. 이 유형의 어휘 분석에서 두드러진 것은 영어 어휘에서 나타나는 파생어의 비율이

다. 독일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 영어 어휘 목록에서 파생어는 10.56%에 불과했던 것이 여기서는 58.47%로 나타났다. 그중 접미사 파생어는 44.88%이며,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접미 파생어에 나타나는 접미사 유형을 살펴보면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이 로만스어에서 온 접미사들이다. 예를 들면 접미 파생명사 중 접미사 -ion을 취하는 어휘 수는 전체의 41.74%에 달하며, 이것은 프랑스어에서도 42.42%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 목록의 영어 명사는 우선적으로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한 로만스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의 접두사의 경우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몇 몇 그리스어에 기원을 둔 접두사를 제외하고 절대 다수의 접두사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영어-프랑스어 유사관계 목록에서도 독일어와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다. 우선 두 언어에서는 합성어 비율이 3.43%인데 비해 독일어의 합성어 비율은 33.83%이다. 또한 독일어의 접두사와 접미사 또한 분명하게 게르만어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래어 접두사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며, 접미사도 99% 이상이 독일어 고유한 접미사이다. 그 중 명사 접미사 -ung 하나 만의 비율도 50%가 넘는다.

독일어와 프랑스어 명사가 형태적으로 유사한 경우는 전체 목록의 3.45%에 불과하지만 보여주는 특징은 독일어의 로만스어화의 현상으로 나타냈다.

세 언어가 유사한 형태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합성어의 기저 어휘들이 그리스어에서 가장 많이 유래하고 있으며, 라틴어 기원 또한 이에 못지않았다. 한편 접두사나 접미사의 유형은 거의 라틴어에 그 기원이 있으며, 그 특성은 영어-프랑스어 유사관계 목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의 독일어 어휘는 특별히 외래어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어가 독일어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전이를 예측하여 독일어 학습자를 돕고자 함이었다. 이를 위해 독일어와 영어의 명사 어휘를 대조 분석하였다. 독일어와 영어 간의 대조 분석에 프랑스어를 포함시킨 것은 프랑스어의 어휘가 영어에 끼친 영향의 정도를 밝혀 보다 명확하게 독일어와 영어 사이의 관계 규명을 위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 독일어와 영어가 같은 게르만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독일어 학습에서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전이가 클 것이라는 예측은 벗어났으며, 특히 어휘적 측면에서 영어는 로만스어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 도출되었다.

|1차 문헌|

Goursau, H. & Goursau, M.(1991): Europäisches Wörterbuch. München: Orbis

|온·오프 라인사전|

http://www.dictionary.com/

http://www.etymonline.com/index.php

http://www.dwds.de

Dauzat, A. & Dubois, J. & Mitterand, H., *Nouveau Dictionnaire Étymologique et Historique*, Librairie Larousse, 1992[6]

Kluge, F., *Etymologisches Wörterbuch*. W. de Gruyter. 1960[18]

Picoche, J., *Dictionnaire Éttymologique du Français*, Les Usuels 1992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

http://www.laurenceanthony.net/software/antconc/

|참고문헌|

김순임 & 송경안, 「독일어·영어 동사구조 및 형태의 통계적 비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3, 한국독일어교육학회, 1998.

리처드 니스벳 저, 최인철 역,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

서정철·강주헌·김용숙·원유상, 『현대 불어학개론』, 신아사, 1989.

송경안 & 김순임, 「독일어, 영어, 불어의 동사구조 비교연구」, 『독일언어문학』 13,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00.

윤혜준, 「독일어 파생 조어의 유형과 분류의 문제 - 파생과 합성의 경계」, 『언어정보』 9,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08.

임국진, 「불어 합성명사의 결합가에 대한 고찰」, 『프랑스학연구』 26, 프랑스학

회, 2003.

플라이셔·바르츠 공저, 오예옥·유시택·이성만 역,『독일어 조어론의 새로운 이해』, 한국문화사, 1999.

허진영,「프랑스어와 영어의 비교 연구 -영어에서 프랑스어 차용을 중심으로-」,『언어과학연구』45, 언어과학회, 2008.

EBS <동과 서> 제작팀·김명진,『EBS 다큐멘터리 동과서』, 예담, 2008.

Bausch, K.-R & Heid, M. (hrsg.), *Das Lernen und Lehren von Deutsch als zweiter oder weiterer Fremdsprache*. Brockmeyer, 1992.

Bußmann, H. (hrsg.),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Kröner, 2002.

Butzkamm, W., *Psycholinguistik des Fremdsprachenunterrichts. Natürliche Künstlichkeit - von der Muttersprache zur Fremdsprache*. Francke, 2002.

Eben, J., *Deutsche Grammatik. Ein Abriß*. Hueber, 1980[12].

Glück, H. (hrsg.), *Metzler Lexikon Sprache*. Metzler, 1993.

Grevisse, M., *Le bon usage : grammaire francaise*. Duculot, 1988.

Günther, B. & Günther, H., *Erstsprache, Zweitsprache, Fremdsprache: Eine Einführung*. Beltz, 2007.

Hufeisen, B., *Englisch als erste und Deutsch als zweite Fremdsprache*. Peter Lang, 1991.

Marchand, H., *The Categories and Types of Present-Day English Word-Formation. A Synchronic-Diachronic Approach*. Beck, 1969.

Neuner, Gerhard, "Deutsch als zweite Fremdsprache nach Englisch - Überlegungen zur Didaktik und Methodik und zur Lehrmaterialentwicklung für die Drittsprache Deutsch". *Deutsch als Fremdsprache* 4, 1996.

Pisani, V., “Entstehung von Einzelsprachen aus Sprachbünden”, *Kratylos* 11, 1966.

Plag, I., *Word-Formation i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Abstract>

A Contrastive Analysis of the Noun Structure in German, English and French

Kim, Soon-im

It is well known that the English language has two kinds of sources in its origin, namely German and French. It started as a Germanic language in the Ancient times. But since the Norman Conquest it had been strongly influenced by French. In the structure of English we hence find characteristics of both German and French. The French influence is dominant especially in the vocabulary. Since Song & Kim(2000) we have statistically pursued the influence of the two languages on the English vocabulary.

The present paper analyzed and compared now the noun structure of German, English and French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languages in this area. For this analysis we selected 4,702 nouns form the parallel European dictionary "Europäisches Wörterbuch"(1991, München: Orbis). The results of our analysis are as follows: The formal similarity between English and German nouns amounts to 10%, which means that the pure Germanic nouns in English are only 10% of the whole. The similarity between English

and French amounts to 27.97%. That means about one third of English nouns are of French origin. 23.82% of the nouns in the three languages are similar in their forms which seems to be originated from the two Ancient languages, Greek and Latin. An interesting point is that 34.70% of the whole nouns are different in all the three languages. The origins and the history of these words are to be pursued in a further research. The similarity between French and English is also confirmed in the affixes. The prefixes and suffixes of the two languages are very similar in forms, while the affixes of German are quite different from them.

A study on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continuing education' in Germany

Key Words : Lexical and morphological comparison, noun structure, german noun, english noun, french noun, affixes

이 논문은 2016년 9월 13일 투고되어 2016년 10월 6일 1차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6년 10월 21일 2차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0월 21일에 게재 확정되었음.